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모형[†]

김영선¹ · 서지영²

^{1,2}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접수 2015년 10월 13일, 수정 2015년 11월 23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27일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로와 그 영향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조모형에 사용된 변수로는 모애착, 자아개념, 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이었다. 연구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31.1$ ($p < .001$), $\chi^2/df=2.36$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91, AGFI=.86, NFI=.91, PNFI=.73, RMSEA=.07, CFI=.95로 권장수준을 만족하였다. 변수들 중 애착, 자아개념,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은 직접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자아개념은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을,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7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감소와 함께,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능력 및 자아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용어: 간호대학생, 구조방정식, 대학생활적응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학점 이수, 시간관리,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을 하게 되므로,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대학생들에게는 잠재적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 (Ha와 Jo, 2006). 이 시기 청소년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고,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및 개인적 문제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Baker와 Siryk, 1984), 개인의 발달에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시기에 주로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 (Lee와 Yu, 2008)함에 따라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Lee, 2009). 특히 간호 대학생들은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많은 양의 학업 이외에도 실습으로 인해 병원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므로 타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46252)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² 교신저자: (46252)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E-mail: marseo@cup.ac.kr

과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하며 (Whang, 2006), 이는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ark과 Jang, 201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 (Kim, 2014), 사회적 지지와 학업스트레스 (Han 등, 2014),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Jeong, 2013),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Lee와 Gu, 2013) 및 임상수행능력 (Lee와 Um, 2013; Park과 Park, 2013),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Park과 Kim, 2013) 등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또는 어떤 변수가 이들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2000년 이후 국내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 애착 (Hong과 Kang, 2010; Choi, 2001), 자기효능감 (Hong과 Kang, 2010; Lee, 2005), 심리적 안녕감 (Kim, 2008; Joo와 Bang, 2006) 및 대처방식 (Ha와 Jo, 2006) 등이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의 예측인자로는 자기효능감 (Hirose 등, 1999), 심리적 안녕감 (Kim과 Jang, 2012)과 적극적 대처 (Leong 등, 1997) 등이 있었다. 또한 영향요인과 예측인자의 공통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과 대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특성 (Kim, 2000; Ha와 Jo, 2006), 스트레스 (Yoon 등, 2011; Ha와 Jo, 2006)나 모애착 (Kim과 Jang, 2012)과 같은 환경적 요인 (Hong과 Kang, 2010)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과 예측요인의 공통된 변수인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관련변수 간의 영향의 크기나 구조를 밝히지는 못했다.

선행연구 중 생태체계이론을 기초로 한 Kim과 Jang (2012)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요인을 유기체요인과 미시체계요인으로 봤으며, 이를 이용해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개인 자신이 지니는 특성인 유기체 요인을 대처와 심리적 안녕감만으로 측정하여, 대처와 적응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런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응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Jeong, 2013; Hirose 등, 1999), 자아탄력성 (Jeong, 2013) 및 자아개념 (Park과 Kim, 2013) 등의 변수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변수들 중 다른 변수들보다 좀 더 포괄적인 변수인 자아개념을 선택하였다.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지각, 신념, 태도들의 체계를 의미 (Felker, 1973)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활적응은 이미 문제가 나타난 학생들로 국한하기 보다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난 스트레스, 그에 따른 대처방식 등 각 변수들 간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변수 간에 영향의 크기나 구조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중재방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간호 대학생에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도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대학생활적응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도출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모형을 설명,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가설적 예측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경로를 검증하는 구조모형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권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중 3개 학교의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Jöreskog와 Sörbom (1993)은 적정표본크기에 대해 투입변수 (q)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200명, 13개 이상인 경우에는 $1.5q(q + 1)$ 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는 투입변수가 8개로 200명이면 충족되나 설문지 회수율 70%,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인한 탈락률 15%를 고려해 간호대학생 299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9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3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27부를 제외한 256부의 자료가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1) 애착

Ok (1998)이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도구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개정본 (PPA-R)을 변안한 것 (Ok, 199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PPA-R은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및 행동적 측면의 애착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3개요인 (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Ok (1998)의 연구에서 부 애착 크론바 알파 (Cronbach's alpha)는 .89, 모 애착 크론바 알파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부 애착 크론바 알파는 .87, 모 애착 크론바 알파는 .88이었다.

2) 자아개념

Jung (1995)이 Fitts (1965)의 도구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변안 개정 (Park 과 Kim, 2013) 표준화된 자아개념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5개요인, 총 8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평점척도로 각 문항은 1점 '매우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 (1995)의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파는 .80이었다.

3)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n 등 (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과의 관계, 장애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 친구와의 관계로 5개요인, 총 31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참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의 빈도를 0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에서 3점 '자주 일어났다'로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n 등 (2000)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75~.88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63~.80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신뢰도의 크론바 알파는 .87이었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

Kim과 Lee (2005)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습교육환경, 역할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갈등, 환자와의 갈등으로 5개요인, 총 24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Lee (2005)의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는 .80이었다.

5) 심리적 안녕감

Kim 등 (2001)이 Ryff (1989)의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을 Ryff와 Keyes (1995)가 한국판으로 변안한 도구 (Kim 등, 2001)를 Kim 등 (2001)이 문항분석 후 46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대인 관계, 및 자기수용의 총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6점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매우 아니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 (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66~.89의 분포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45~.85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크론바 알파는 .85였다.

6) 대처방식

Amirkhan (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 (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Shin과 Kim (2002)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제해결 중심, 회피중심, 및 사회적 지지 추구의 총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3점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였다. Shin과 Kim (2002)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67~.90, 전체 크론바 알파는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72~.89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크론바 알파는 .51이나 회피중심 대처요인을 제거한 후 크론바 알파는 .71이었다.

7) 대학생활적응

Jeong과 Park (2009)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개요인 (진로준비, 학업활동, 대인관계, 개인 심리, 사회체험)의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과 Park (200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70~.86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크론바 알파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크론바 알파는 .61~.84의 분포를 보였고, 전체 크론바 알파는 .77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소요시간과 설문지의 적절성을 파악했고, 도구의 신뢰도도 검증되어 수정 없이 그대로 본 조사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대상 해당 학교의 학과장과 3, 4학년 강의에 들어가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허락을 받았고, 대상자에게 설문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하지 않으면 도중에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자료는 연구목적만을 위한 자료분석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한 번 더 공지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 (Pearson's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크론바 알파에 의한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장래 문제와,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60이하로 낮게 나타나 이들을 제거한 후, 신뢰도 .60이상의 요인들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애착, 자아개념, 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의 변인에 대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AMOS프로그램과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인요인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증, χ^2/df , 기초적합지수(goodness-of-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GFI),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residual approximation; RMSEA),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적합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원소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간명표준적합지수(parsimonious normed-fit index; PNFI)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1과 같다.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
Average age (year)	M±SD (min~max)	21.68±2.66	(19~39)
Grade	Junior	162	63.3
	Senior	94	36.7
Sex	Male	17	6.6
	Female	239	93.4
Religion	Yes	128	50.0
	No	128	50.0
Transfer student	Yes	35	13.7
	No	221	86.3
Club activities	Do	133	52.0
	Don't	123	48.0
Reasons for choosing department	Voluntary motivation	102	39.8
	Employment apt	99	38.7
	Solicitation of parents, teacher	48	18.8
	According to the score	5	2.0
	Others	2	0.8
The location of high school	Seoul	3	1.2
	Metropolitan	157	61.3
	City	61	27.7
Living environment	Country	25	9.8
	With parents	164	64.1
	Dormitory or lodging	45	17.6
	Self-catering	43	16.8
	Others	4	1.6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68±2.66세이며, 학년은 3학년 162명 (63.3%), 4학년 94명 (36.7%)이었다. 성별은 여학생 239명 (93.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는 있는 학생 128명 (50.0%)이었다. 편입을

한 학생 35명 (13.7%),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133명(52.0%)이었다.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자발적 동기 102명 (39.8%), 취업 용이성 99명(38.7%), 부모님, 선생님 등의 주위 권유 48명(18.8%), 점수에 맞추어서 5명(2.0%), 기타 2명 (0.8%)이었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광역시 157명 (61.3%), 중소도시 61명 (27.7%), 군, 면 단위 25명 (9.8%), 특별시 3명(1.2%)이었다. 거주 환경은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 164명 (64.1%), 하숙 및 기숙사에 사는 학생 45명(17.6%), 자취하는 학생 43명 (16.8%), 기타 4명 (1.6%)이었다.

3.2. 대상자의 연구변수

본 연구의 학교적응 관련변수의 기술적 통계는 Table 3.2와 같다.

Table 3.2 Descriptive statistics for observed variables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Father attachment	1-5	3.79±0.59	-0.77	0.84
Communication		3.62±0.76	-0.36	-0.15
Trust		3.82±0.59	-0.71	1.03
Alienation		4.09±0.59	-1.12	1.25
Mother attachment	1-5	3.96±0.59	-0.98	0.90
Communication		3.94±0.63	-0.98	1.03
Trust		3.90±0.76	-0.67	-0.06
Alienation		3.90±0.59	-0.81	1.01
Self concept	1-5	3.44±0.32	-0.40	1.17
Physical self concept		3.33±0.38	-0.17	0.44
Moral ethical self concept		3.57±0.38	-0.88	4.82
Personal self concept		3.06±0.39	-0.31	0.61
Family self concept		3.72±0.50	-0.35	0.15
Social self concept		3.53±0.45	-0.16	0.66
Stress	0-3	0.80±0.44	1.05	1.20
Relation with family		0.63±0.53	1.03	0.99
Problem of future		0.74±0.45	1.03	2.06
Sense of value		1.05±0.64	0.86	0.51
Academic problem		0.62±0.55	1.23	1.45
Relation with friend		0.97±0.55	0.90	1.02
Stress of clinical practice	1-5	2.85±0.56	-0.26	0.57
Teaching practice condition		3.36±0.79	-0.48	0.29
Undesirable role		3.16±0.78	-0.11	-0.01
Burden of practice affairs		3.31±0.80	-0.19	0.26
Personal relations conflict		2.20±0.68	0.73	0.92
Conflict with patient		2.23±0.71	0.17	-0.51
Coping	0-3	2.27±0.29	-0.33	0.48
Problem solving		2.22±0.41	-0.02	-0.11
Avoidance		2.25±0.36	-0.40	-0.50
Social support seeking		2.33±0.44	-0.35	-0.25
Psychological well-being	1-6	4.02±0.52	-0.51	1.43
Personal growth		4.10±0.55	0.28	0.15
Self acceptance		3.94±0.78	-0.70	1.47
Positive relation		4.44±0.89	-0.80	1.00
Autonomy		3.73±0.52	-0.06	0.83
Purpose of life		4.05±0.79	-0.37	0.45
Environmental mastery		3.84±0.51	-0.38	0.92
College adaptation	1-5	3.18±0.60	0.19	0.16
Interpersonal relation		2.88±0.89	0.08	-0.55
Academic activity		3.68±0.62	-0.13	0.13
Career presentation		2.73±0.80	0.45	-0.01
Personal psychology		3.65±0.83	-0.37	-0.22
Social experience		2.95±0.98	-0.15	-0.33

각 변수에 대한 평균평점은 부애착 3.79±0.59점, 모애착 3.96±0.59점, 자아개념 3.44±0.32점, 스트

레스 0.80 ± 0.44 점, 실습스트레스는 $2.85 \pm .56$ 점이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4.02 \pm .52$ 점, 대처 $2.27 \pm .29$ 점이었으며, 대학 생활 적응은 $3.18 \pm .60$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왜도 3.0, 첨도 10.0보다 적으므로, 정규성을 만족하여 최우도법으로 모형적합도를 검정하였다. 회귀모형 진단결과 공차가 .1이하이거나 상승변량 10이상인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부애착과 모애착의 상관계수가 0.75이상으로 나타나 정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r=.77, p < .010$),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Bae, 2011), 수정모형에서는 부애착을 제거하였다.

3.3.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각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3.3과 같다.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는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개념 ($r=0.78, p < .001$)에서, 가장 높은 부적상관관계는 심리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r=-0.54, p < .001$)에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부애착을 제외한 각 요인 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를 확인한 결과, 각 요인들의 AVE가 모두 0.5 이상이고, CR도 모두 0.7 이상이므로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3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for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i>r</i> (<i>p</i>)								CR ^b	
	1	2	3	4	5	6	7	8		
1. Father attachment	1									
2. Mother attachment	.77 (<i><.001</i>)	.64 ^a								.84
3. Self concept	.48 (<i><.001</i>)	.58 (<i><.001</i>)	.59 ^a							.74
4. Stress	-.44 (<i><.001</i>)	-.46 (<i><.001</i>)	-.49 (<i><.001</i>)	.68 ^a						.86
5. Stress of clinical practice	-.24 (<i><.001</i>)	-.16 (.009)	-.21 (.001)	.40 (<i><.001</i>)	.68 ^a					.81
6. Coping	.36 (<i><.001</i>)	.43 (<i><.001</i>)	.61 (<i><.001</i>)	-.34 (<i><.001</i>)	-.12 (.047)	.60 ^a				.74
7. Psychological well-being	.49 (<i><.001</i>)	.57 (<i><.001</i>)	.78 (<i><.001</i>)	-.54 (<i><.001</i>)	-.19 (.002)	.63 (<i><.001</i>)	.71 ^a			.88
8. College adaptation	.26 (<i><.001</i>)	.33 (<i><.001</i>)	.46 (<i><.001</i>)	-.38 (<i><.001</i>)	-.20 (.001)	.44 (<i><.001</i>)	.54 (<i><.001</i>)	.58 ^a		.73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b: Composite Reliability

3.4. 모형 검정

1) 가설적 모형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Figure 3.1과 같으며,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지수는 $\chi^2=1183.2$ ($p < .001$), $df=443$, $\chi^2/df=2.671$, GFI=.77, AGFI=.72, RMSEA=.08, CFI=.83, NNFI=.81로 나타났다 (Table 3.4).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χ^2/df 값은 2~3의 범위에 있어 적합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낮아 모형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4 Comparison of fitness of statistics for the modified model

Indices	χ^2 (<i>p</i>)	df	χ^2/df	GFI	AGFI	RMSEA	CFI	NFI	NNFI	RMR	PNFI
Hypothetical model	1183.2 (<i><.001</i>)	443	2.67	.77	.72	.08	.83	.75	.81	.08	.67
Modified model	231.1 (<i><.001</i>)	98	2.36	.91	.86	.07	.95	.91	.92	.0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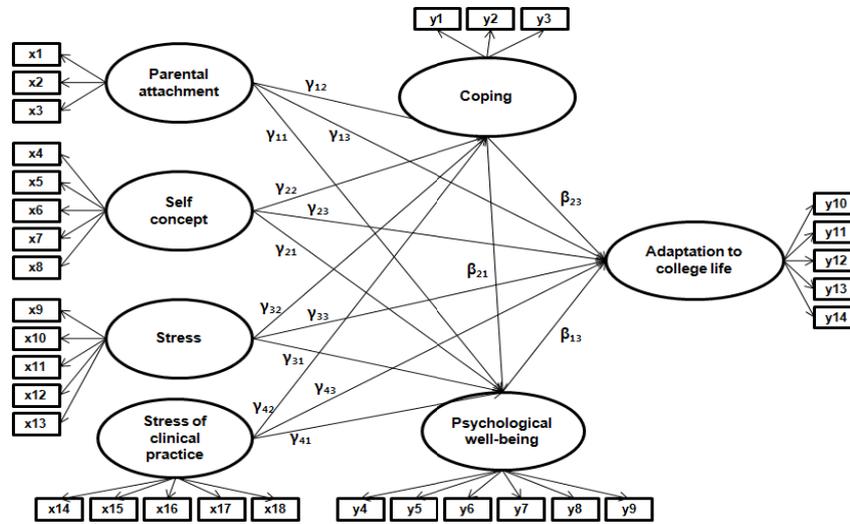


Figure 3.1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x1 = communication; x2 = trust; x3 = alienation; x4 = physical self concept; x5 = moral self concept; x6 = personal self concept; x7 = family self concept; x8 = social self concept; x9 = relationship with family; x10 = problem of future; x11 = sense of value ; x12 = academic problem; x13 = relationship with friend; x14 = teaching practice conditions; x15 = undesirable role; x16 = burden of practice affairs; x17 = personal relations conflict; x18 = conflict with patient; y1 = personal growth; y2 = self acceptance; y3 = positive relation; y4 = autonomy; y5 = purpose of life; y6 = environmental mastery; y7 = problem solving; y8 = avoidance; y9 = social support seeking; y10 = interpersonal relation; y11 = academic activity; y12 = career presentation; y13 = personal psychology; y14 = social experience

2) 수정 모형의 검증

(1) 모형의 수정과정

가설적 모형의 수정방법에는 기존의 잠재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모수를 추가하는 방법, 기존의 잠재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모수를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잠재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통한 수정 방법 등이 있다 (Lee, 1990; Park, 2014).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포함하는 수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수를 수정하기 위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에서 나온 표준화 회귀계수가 0.7 이하인 경우 개별 관측변수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떨어뜨리므로 모형 분석에서 제거해야 한다 (Bae,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서 가족관계, 장래문제 두 개의 관측변수, 실습스트레스에서 실습교육환경, 대인관계갈등, 환자와의 갈등 세 개의 관측변수, 자아개념에서 신체적자아, 성격적자아, 및 사회적자아 세 개의 관측변수, 대처에서 회피중심, 심리적 안녕감에서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및 자율성 문항 세 개의 관측변수, 대학생활 적응에서 대인관계, 진로준비, 및 사회체험 세 개의 관측변수가 표준화 회귀계수가 0.7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에서 제거하였다. 그러나 대처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문항, 자아개념에서 도덕적자아 문항, 대학생활 적응에서 학업활동 문항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0.7보다 작았지만 강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잠재변수에 하나의 관측변수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관측변수를 제거하지 않았다 (Bae, 2011).

(2) 수정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31.1$ ($p < .001$), $df=98$, $\chi^2/df=2.36$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는 각각 $GFI=.91$, $AGFI=.86$, $RMSEA=.07$, $CFI=.95$, $NFI=.91$, $NNFI=.92$, $RMR=.06$, $PNFI=.66$ 이었다. 수정모형의 GFI , $RMSEA$, CFI , NFI , $NNFI$, $PNFI$ 권장 수준을 만족하며, 나머지 지수 역시 가설모형의 지수보다 향상된 값이다 (Table 3.4).

(3) 수정 모형에 대한 추정계수 유의성 검정 및 효과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제시된 15개의 경로 중에서 9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지된 9개 경로와 수정 모형은 Figure 3.2와 같다. 수정모형의 외생변수들이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5와 같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gamma_{21}=.39$, $t=3.08$, $p=.006$),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gamma_{31}=-.31$, $t=-4.39$, $p=.001$), 대처방식의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beta_{21}=.30$, $t=3.44$, $p=.004$) 높아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gamma_{21}=.19$, $p=.002$)은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 ($\gamma_{21}=.58$, $p=.003$), 스트레스 ($\gamma_{31}=-.32$, $p=.001$), 및 대처방식 ($\beta_{21}=.30$, $p=.004$)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모 예측, 자아개념, 스트레스, 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설명력은 65%였다.

대처방식의 경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gamma_{22}=.63$, $t=4.20$, $p=.003$) 높아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 ($\gamma_{22}=.63$, $p=.003$)은 총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처방식에 대한 모 예측, 자아개념, 스트레스, 및 실습스트레스의 설명력은 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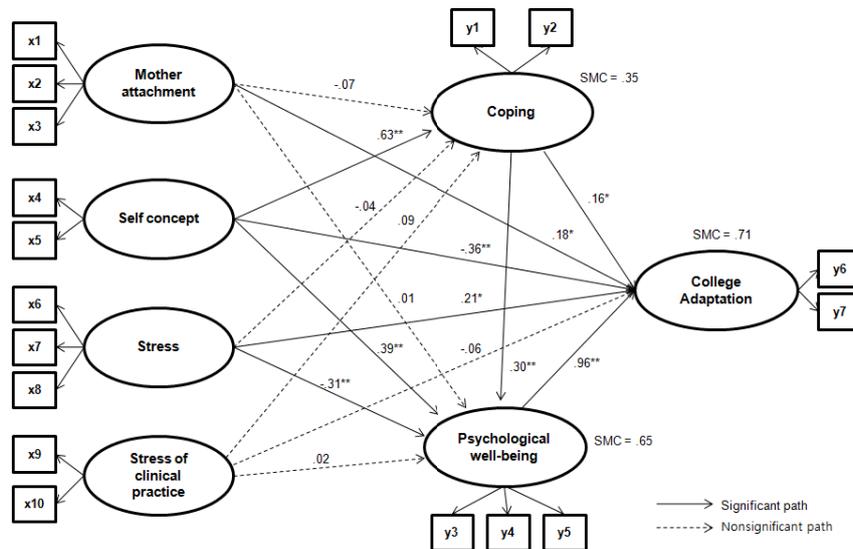


Figure 3.2 Modified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x1 = communication; x2 = trust; x3 = alienation; x4 = moral self concept; x5= family self concept; x6 = sense of value; x7 = academic problem; x8 = relationship with friend; x9 = undesirable role; x10 = burden of practice affairs; y1 = problem solving; y2 = social support seeking; y3= self acceptance; y4 = purpose of life; y5 = environmental mastery; y6 = academic activity; y7 = personal psychology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모 애착이 높을수록 ($\gamma_{13}=.18, t=2.11, p=.042$),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gamma_{23}=-.36, t=-2.71, p=.004$),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gamma_{33}=.21, t=2.66, p=.013$),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beta_{13}=.96, t=8.02, p=.004$), 그리고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beta_{23}=.16, t=1.94, p=.049$) 높아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gamma_{23}=.66, p=.003$), 스트레스 ($\gamma_{33}=-.31, p=.002$), 및 대처방식 ($\beta_{23}=.29, p=.005$)은 대학생활적응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 ($\gamma_{23}=.30, p=.017$), 심리적 안녕감 ($\beta_{13}=.96, p=.004$), 및 대처방식 ($\beta_{23}=.45, p=.001$)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모 애착, 자아개념, 스트레스, 실습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의 설명력은 71%였다.

Table 3.5 Parameter estimates for modified model and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N=256$)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effect (p)	Indirecteffect (p)	Totaleffect (p)	SMC
Psychological well-being	Mother attachment (γ_{11})	.015 (.795)	-.022 (.432)	-.007 (.976)	.647
	Stress (γ_{21})	-.308 (.001)	-.011 (.514)	-.319 (.001)	
	Stress of clinical practice (γ_{31})	.024 (.701)	.026 (.232)	.050 (.456)	
	Self Concept (γ_{41})	.391 (.006)	.188 (.002)	.579 (.003)	
	Coping (β_{21})	.298 (.004)	-	.298 (.004)	
Coping	Mother attachment (γ_{12})	-.075 (.598)	-	-.075 (.598)	.352
	Stress (γ_{22})	-.037 (.563)	-	-.037 (.563)	
	Stress of clinical practice (γ_{32})	-.086 (.333)	-	.086 (.333)	
	Self Concept (γ_{42})	.632 (.003)	-	.632 (.003)	
Adjustment to college life	Mother attachment (γ_{13})	.184 (.042)	-.019 (.876)	.165 (.205)	.705
	Stress (γ_{23})	.210 (.013)	-.313 (.002)	-.103 (.256)	
	Stress of clinical practice (γ_{33})	-.060 (.211)	.062 (.435)	.002 (.981)	
	Self Concept (γ_{43})	-.360 (.004)	.661 (.003)	.302 (.017)	
	Psychological well-being (β_{13})	.964 (.004)	-	.964 (.004)	
	Coping (β_{23})	.163 (.049)	.287 (.005)	.450 (.0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 간의 경로 및 영향력을 분석하여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최종 수정모형에서 간호대학생의 모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대처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상급학생들에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Kenny와 Barton, 2002)와 부모의 관심 (Seo, 2015)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Jang (2012)의 연구에서는 간접 및 총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대학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Hong과 Kang (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 적응에만 모 애착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모 애착이 대처방식이나 심리적 안녕감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모와의 안정적인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Kim, 2008), 나아가 대처방식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선행연구 (Kim과 Jang, 2012)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차이가 임의표집한 각 연구 간의 표집오차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무작위 표집을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은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양식 모두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00)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자아해석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Joo와 Bang (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와 Chun (2009)의 연구, 자기효능감이 대처방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Ha와 Jo (2006)의 연구, 및 자아해석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Yoon 등 (2011)의 연구 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Kim (2000)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직접효과는 자아개념의 점수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접효과는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개념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방식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방식을 매개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효과가 나타났으나 총효과는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에는 직접 및 총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처방식에는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Ha와 Jo (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향 중 개인기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에서 대인관련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와 Lee와 Yu (2008)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Kim과 Jang (201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와 Lee와 Yu (2008)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도구가 가족과의 관계, 장애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와 친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에 따라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정도가 달라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스트레스 하위요인을 분석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와 직·간접효과가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 (Kim과 Jang, 2012)에서 나타나 이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 Kim과 Lee (2005)의 연구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 Park과 Kim (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에서 임상실습은 이수해야 할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때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변수라고 한 Kim과 Jang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 성장이나 자기 관리 프로그램 등을 학교생활을 통해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으로 자신감과 삶의 비전을 높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더 나은 적응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생의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 및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와 Jo (2006)의 연구에서 긍정적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Joo와 Bang (2006)은 구조모형 방정식을 통해 청소년의 대처양식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함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회피하려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나 주변대처 자

원들을 찾으려는 대처행동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개인내적 자원을 증진시켜주어 결과적으로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처방식 중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과 함께 사회적 지지 체계방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상담실 운영 및 활성화와 주변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자면,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연구에서는 무작위 표집이나 종단적 설계를 통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66-1074.
- Armsden, G. C. and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to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e, B. R. (201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principles and practice*, Cheongram, Seoul.
- Baker, R. W. and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79-189.
- Choi, E.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n, K. K., Kim, K. H. and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316-335.
- Felker, D. W. (1973). The effects of a teacher program in self-concept enhancement on pupils' self-concept, anxiety, and intellectual achievement responsibil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6**, 443-446.
- Fitts, W. H. (1965). *Tennessee self-concept scale manual*. Counselor Recording and Tests, Nashville, TN.
- Ha, J. H. and Jo, H. I.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 595-611.
- Han, K.S., Yang, Y. K., Bae, M. H. and Yang, S. H.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 23-33.
- Hirose, E. I, Wada, S. and Watanabe, H. (1999). Effects of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41**, 163-172.
- Hong, K. O. and Kang, H. W. (2010).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their self-efficacy for academic attainment to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3**, 133-144.
- Jeong, E. I and Park, Y. H.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 69-92.
- Jeong, G. S. (2013).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10**, 165-183.
- Joo, H. S. and Bang, H. J. (2006). The effect of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terpersonal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I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d.), Proceedings of the 200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84-285.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 Jöreskog, K. G. and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oinal, Inc., Lincolnwood.
- Jung, W. S. (1995). *Guideline of self-concept Examination*, Korea Testing Center, Seoul.
- Kim, E. A. and Jang, K. S.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 312-322.
- Kim, H. D. (200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concept and their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 57-79.
- Kim, J. H. (2014).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 409-415.
- Kim, S. L. and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98-106.

- Kim, M. S., Kim, H. W. and Cha, K. H.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 19-39.
- Kim, S. H. (2008).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stressful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6**, 5-29.
- Kenny, M. E. and Barton, C. (2002).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ontributions for understanding late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velopment. In *J. Demick & C. Andreoletti (Eds.)*, Handbook of adult development (371-389), Norwell, MA: Kluwer.
- Lee, E. O., Yim, N. Y., Park, H. A., Lee, I. S., Kim, J. Y., Bae, J. E. and Lee S. M. (2009).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oomoonsa, Seoul.
- Lee, E. W. (2005). *Impacts of the affective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H. J. and Um, M. Y. (2013). Stress-coping-adaptation model for unwed mothers: It's empirical tes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 113-40.
- Lee, O. S. and Gu, M. O. (2013).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2749-2759.
- Lee, S. A. and Chun, B. K. (2009). The influence of physical self-descrip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iversity's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6**, 341-350.
- Lee, S. J. (2009). The effect of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a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 229-248.
- Lee, S. J. and Yu, J. H.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 Psychology Association*, **22**, 589-607.
- Lee, S. M. (1990).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ongwonsa, Seoul.
- Leong, F. T. L., Bonz, M. H. and Zachar, P. (1997). Coping styles as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0**, 211-220.
- Ok, J. (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Ewha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 Park, G. O. and Kim, Y. S. (2013).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cept,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 2149-2163.
- Park, H. C. (2014). Comparison of confidence measures useful for classification model build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365-371.
- Park, H. J. and Jang, I. S.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 14-23.
- Park, S. J. and Park, B. J. (2013).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 313-32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and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eo, J. Y. (2015).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the school adjustment by BMI.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429-440.
- Shin, H. J. and Kim, C. D. (2002).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919-935.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205-213.
- Yoon, H. S., Hwang, Y. M., Kim, D. B. and Jang, S. H. (2011).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 1-25.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Youngsun Kim¹ · Jiyeong Seo²

^{1,2}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Received 13 October 2015, revised 23 November 2015, accepted 27 November 2015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SEM that would further explain the college adaptation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Model construction was based on the variables; mother attachment, self concept,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sychological well-being, coping, and college adaptation. The analysis of data was done with both SPSS 20.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AMOS 20.0 for SEM. **Result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p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direct effect in predicting college adaptation. In addition, mother attachment, self concept, an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direct effect in predicting college adaptation. The final modified model yielded $\chi^2=231.1$ ($p < .001$), $\chi^2/df=2.36$, GFI=.91, AGFI=.86, NFI=.91, PNFI=.73 RMSEA=.07, and CFI=.95. **Conclusion:** To improv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t is recommended to have a direct method of develop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ping improvement program to improve mother attachment.

Keywords: Adaptation, nursing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fered fro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2.

¹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46252,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46252, Korea. E-mail: marseo@cup.ac.kr